

광주 고민상담 못받는 초등생 많다

지역 초교 Wee클래스 설치율 21.6% 그쳐 학생정신건강 케어시스템 부족...대책 절실

광주지역 초등학교위(Wee)클래스(학생위기상담실) 설치율이 중·고등학교 설치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이 정신건강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전문적인 상담 시스템 부재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Wee클래스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교 Wee클래스 설치율은(지난 4월 기준) 21.6%(32개교)로 10곳 가운데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

북(13.4%)·제주(18.9%)·충북(20.2%) 순이며, 대구가(93.4%)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Wee는 We+education 또는 We+emotion의 합성어로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3단계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망'이다. 지난 2008년부터 ▲학교는 Wee클래스 ▲지역교육지원청은 Wee센터 ▲시·도 교육청은 Wee스쿨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Wee클래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와 교육당국은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시

켜야 하지만, 관내 초교에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지역교육청 한 관계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초교 학생들이 성폭력 등 여러 관련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정착·마련돼야 하는데 교육당국이 예산과 정규직 등의 문제로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전국 초·중·고 Wee클래스 현황(2015~2017)에서 초등학생 상담건수는 52만8,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정신건강 상담내용은 32만5,280건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관내 Wee클래스 설치율이 타지역에 비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갖춘 교사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선 상담교사 정원을 교육부에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임의로 확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대신 전문상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교육당국이 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행히 광주지역 중·고교는 초교에 비해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97.8%(67개교)·고교 68.2%(45개교)가 Wee클래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인격 형성시기인 초교시절 정신건강과 대인관계, 성격에 관한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낮은 Wee클래스 설치율로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초등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Wee클래스 확충 및 전문상담교사 충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기자

■ 교육과정평가원, 2018학년도 수능결과 발표

지난해 치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광주지역 수험생들의 국어와 수학과목 표준점수 평균 시·도별 순위가 전년도보다 한 단계씩 낮아졌다.

전남의 국어·수학 점수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일 발표한 2018학년도 국어 수학 수능 표준점수와 영어 등급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어의 경우 광주 표준점수 평균은 99.6점으로 제주 102.3점 대구 101점 서울 100.4점 뒤를 이어 4위였다. 전년도 3위에서 한 단계 미끄러졌다.

고 110.2점 최저 63.5점으로 차이가 46.7점이 났다. 수학(가)는 최고 111.3점 최저 80.7점, 수학(나)는 최고 111점 최저 74.2점이었다.

전남의 표준점수 평균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94.8점, 표준편차는 19.6이었으며 수학(가) 표준점수 평균 89.5점 표준편차 21.5, 수학(나) 표준점수 평균 96.9점 표준편차 18.3이다.

국어는 강원(94.7점)과 함께 최하위였으며, 수학(가)와 수학(나)는 전국 최하위였다. 과목별 1·2등급 비율은

'후진하는' 광주 학력 수능 전국순위 또 하락

전남 국어·수학 표준점수는 '최하위권'

광주지역 내 학교간 표준점수 평균의 차이는 18.8로 대구 18.3 제주 18.3 다음으로 작았다. 표준점수 평균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의 성적 평균이 높다는 뜻이며, 표준점수 평균 차이가 작다는 것은 학교 간 학력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광주의 수학(가) 표준점수 평균은 101.6점 표준편차는 17.8로, 제주(105.9점) 서울(102.6점) 다음으로 대구와 함께 3위였다. 표준편차는 제주(15.5) 대구(17.7) 다음으로 작았다.

수학(나) 표준점수 평균은 100.7점으로 제주(104.9점) 대구(101.6점) 다음으로 3위였다. 수학(가)(나) 표준점수 평균 전년도 순위는 모두 2위였는데 두 과목 모두 한 단계씩 떨어졌다.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높은 학교와 가장 낮은 학교를 살펴보면 국어는 최

전년도보다 다소 늘어나거나 비슷했으며 순위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국어의 경우 광주 1·2등급 비율은 10%로 서울 13.4%·제주 10.8%·대구 10.3%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수학(가)의 1·2등급 비율은 광주 13.6%로 서울 18.2%·제주 17.1%·대구 13.8% 다음으로 많았다.

전년도 수학(가) 1·2등급 비율(12.7%)보다 다소 늘었으며 순위는 1단계 높아졌다.

영어 1·2등급 비율은 광주 26%로 서울 31.6%·대구 29.8%·제주 28.9% 다음이다. 전남 과목별 1·2등급 비율은 국어 6.6% 수학(가) 6.7% 영어 18.6%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전형과 함께, 현재 변화되는 대입 전형에 맞춰 학교와 학생 중심의 효율적인 진학 체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4천억대 횡령·배임' 이종근 징역 12년 구형



수천억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종근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종근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할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노인의 날 투호 던지기 2일 오후 광주 동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노인의 날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투호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제3의 경찰 CCTV"...연간 1천건 해결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경찰이 공조해 현장에서 처리를 끝낸 범죄 건수가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1,047건을 기록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CCTV

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 402건, 전남 645건이다. 이는 CCTV 관제요원이 범죄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통보해 현행범 검거 또는 계도, 훈방이 이뤄진 사건만 따로 집계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광주 326

건, 전남 259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은 광주 4건, 전남 79건, 강도는 전남에서만 3건이 해결됐다. 강간은 광주 4건, 전남 7건이다.

CCTV는 수배자 검거와 도난차량 회수에도 큰 도움이 됐다.

이 의원은 "CCTV가 제3의 경찰로 불릴 만하다"며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도 상존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외로운 밤은 싫어"



○...술집에서 외로움을 달래 달라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경찰서행.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방 51(51)는 지난 1일 밤 9시께 북구 용봉동 한 술집에서 "밤이 너무 외롭다"고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이혼 후 혼자 사는 방씨가 욕구를 참지 못하고 소란을 피운 것 같다"며 "당분간 외로움보다 수치심에 시달릴 것"이라고 혀를 끌끌.

/김종찬기자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6834-7400